



# 최근의 국제석유시장 동향과 전망



李 源 喆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대리〉

**지난해** 연말부터 이란, 이라크가 市場連動價格으로 원유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무너졌던 배럴당 18달러의 固定油價體制는 지난 4월 9일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價格動向監視委員會의 개척을 계기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OPEC의 88년도 1/4분기 생산량은 1,570만b/d(이라크 제외)로 작년 12월 총회의 생산상한량인 1,506만b/d(이라크 제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재고누적 및 異常暖冬으로 인한 석유수요의 감소에 따라 油價는 지난 3월에는 고정가격인 18\$/b 보다 4~5달러나 하회하였다. 이러한 가격폭락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회원국들은 OPEC의 루크만議長에게 가격동향감시위원회의 召集을 요구, 지난 4월 9일 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페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및 인도네시아등의 5개국 石油장관들이 참석한 상기위원회가 열렸다.

이위원회에서는 지난 1/4분기의 價格下落을 OPEC의 증산에 따른 것으로 결론짓고, 4월 26일 멕시코, 이집트, 오만등의 非OPEC諸國과 산유량 減産強化를 위한 產油國 合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기회의의 結果를

국제원유가격추이

(단위 : \$ / B)

	브렌트	WTI	보나라이트	오만	두바이
1987. 1	18.35	18.50	18.50	17.55	17.21
2	17.30	17.75	17.89	17.14	16.85
3	17.85	18.30	17.78	17.35	16.86
4	18.40	18.70	18.34	17.30	16.98
5	18.80	19.55	18.87	17.35	17.04
6	18.85	20.05	18.96	17.50	17.15
7	19.80	21.25	19.92	17.95	17.87
8	19.00	20.40	19.10	17.60	17.28
9	18.41	19.53	18.54	17.21	16.97
10	18.88	19.90	19.03	17.41	17.04
11	17.90	19.05	18.05	17.01	16.56
12	17.45	17.23	17.28	15.85	15.39
1988. 1	16.97	17.17	16.85	15.96	15.50
2	15.89	16.84	15.80	15.53	14.90
3	14.83	16.21	15.02	13.87	13.44

註 : 현물가격기준임

토대로 4월 28일에는 OPEC 13개국의 석유장관회의를 소집, 5~10%의 감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최근의 유가는 다시 반등하여 뉴욕선물시장의 WTI(서부텍사스 중질유)는 지난 4월 12일 18.06\$/b로 올라 작년 12월 11일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非OPEC諸國과의 감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유가는 더 한층 상승할 것이며, 설사 감산에 실패하더라도 배럴당 17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非OPEC 산유국과의 合同會議 개최에 따라, 유가 급상승

OPEC가 非OPEC諸國과 산유량감소를 위해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만약 이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경우, 원유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油價安定을 위해서는 兩그룹 모두 산유량을 줄여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감산합의의 가능성은 높지만, 그 규모는 소폭이 될 것 같다.

石油消費國에서는 이같은 최근의 추세를 86년의 油價 대폭락 직후, OPEC가 非OPEC와의 協調減産에 따라 18\$/b의 고정가격제를 채택한 86년 후반과 비슷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88년의 경우도 지난 86년초와 같이, 산유국들이 공식販賣價格을 철회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질주하였지만, 그때 당시와는 가격하락폭도 작고 하락기간도 짧아 OPEC가 배수진을 치고 對應策을 모색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OPEC도 이미 자신의 생산쿼터량을 준수하고 있으며 87년 7월의 메카사태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도 냉각된 상태이다.

따라서, OPEC와 非OPEC가 감산협약에 나서는 것은 스파르타시장의 원유가격 하락추세를 反轉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즉 메이저(국제석유자본)를 포함한 非OPEC의 신흥산유국들은 OPEC에 비해 생산코스트가 높고, 投資回收가 급한 실정이므로 OPEC와 같이 가격카르텔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OPEC가 價格維持에 성공하기 위

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과 비슷한 英國,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北海의 감산협조(380만b/d 생산수준)가 필요하다. OPEC내부에서도 사우디·이란의 관계회복과 더불어 이란과 동일한 생산량을 요구하는 이라크(240만b/d 생산수준)를 생산쿼터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근의 현물가격 급등은 시장참여자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作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非OPEC諸國과의 감산협약의 시장심리적인 면에서의 가격유지를 위한 처방법으로 볼 수 있다.

1988년의 世界石油需給예측

(단위 : 백만 B/D, 공산권 제외)

	1~3월	4~6월	7~9월	10~12월	연평균
世界石油需要	4,920	4,670	4,840	4,990	4,860
OPEC生産	1,570	1,690	1,910	1,880	1,760
非OPEC生産	2,830	2,850	2,900	2,880	2,870

註 : 국제에너지기구 추정. 세계석유수요에는 비축, 재고포함 OPEC생산에는 이라크제외.

◇ 油價는 연말경 20\$/b선까지 상승가능

비록 OPEC와 非OPEC간의 감산합의가 실패되더라도 오는 6월8일부터 시작되는 OPEC 정기총회에서 새로 감산합의를 이를 가능성이 크다. 즉, 이라크를 제외한 OPEC 12개국은 작년 12월 총회의 생산상한량 1,506만b/d보다 5% 정도의 감산이 예상된다. 이라크도 대폭적인 감산은 불가능해도 상징적인 소폭감산이 기대되며, 이집트, 멕시코 등 非OPEC諸國도 이와 병행하여 산유량을 줄일 것이다.

석유수출국들로서는 오는 5월이 큰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나 감산이 진행되면 소비국의 재고방출이 급속히 촉진되어 油價는 수급원리에 따라 반등, 연말경에는 20\$/b선에 이를 것이다. 이같은 市場의 반발에 따라 88년 12월의 OPEC총회에서는 공식판매가격을 현재보다 배럴당 1달러 인상한 19\$/b로 높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

